

영화, 새로운 시작
다들 주목 영화의 시대, 체육과 전북의 대응

ISSUE BRIEFING 2018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8.07.06 vol.173

www.jthink.kr

연구진
최영규 문화관광연구부 부연구위원

ISSUE BRIEFING 2018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2018.07.06 vol.173

CONTENTS

‘평화, 새로운 시작’

남북 평화의 시대, 체육과 전북의 대응

I. 남북관계, 다시 찾아온 봄	3
1. 판문점선언	3
2. 소프트 파워	4
II. 남북교류 마중물 ‘체육’	5
1. 남북체육회담	5
2. 30초 TV 광고 ‘남북 공동입장’	6
3. 통일농구	6
4. 통일축구	7
III. 남북교류를 위한 전라북도 체육의 대응	7
1. 지역에서 바라본 남북 체육교류의 의의와 한계	7
2. 전라북도 남북교류 조례	8
3. 전라북도형 남북 체육교류	9



9 772508 688004
ISSN 2508-688x

발행인 김선기

발행처 전북연구원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이슈브리핑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I. 남북관계, 다시 찾아온 봄

1. 판문점선언

- 금강산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폐쇄로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에 다시 봄이 오고 있음
 -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북한 태권도 중심의 ITF¹⁾ 시범단 방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북한선수단 및 응원단 참가, 2018년 4월 남측예술단 ‘봄이 온다’방북 공연
- 2018년 4월 27일 남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발표함
 - 판문점선언은 화해와 평화번영의 남북관계로 전쟁 없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 개막을 천명
 -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 3조 13항을 담음

1) 국제 태권도 연맹(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2) <http://www.koreasummit.kr/sub02/koreasummit.html>

〈판문점선언 주요 내용〉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할 것임
 - ① 민족자주의 원칙 확인, 기존 남북 간 선언·합의 철저 이행
 - ② 고위급회담 등 분야별 대화를 빠른 시일 안에 개최, 실천대책 수립
 - ③ 남북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지역 설치
 - ④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
 - ⑤ 8·25이산가족 상봉행사 진행, 남북적십자회담 개최
 - ⑥ 10·4선언 합의사업 적극 추진,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공동 노력
 - 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 ② 서해 평화수역 조성으로 우발적 충돌 방지 대책 마련, 안전어로 보장
 - ③ 국방부장관회담 등 군사당국자회담 수시 개최, 5월 장성급 군사회담 개최
3. 남과 북은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
 - ① 무력 불사용과 불가침 합의 재확인 및 엄격 준수
 - ② 상호 군사적 신뢰의 실질적 구축에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 실현
 - ③ 올해 종전선언,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3자 또는 4자 회담 개최
 - ④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

〈출처〉 2018 남북정상회담 공식홈페이지²⁾

- 판문점선언은 1조 ④항 각계각층의 다방면적 교류·협력 및 왕래·접촉 활성화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함
- 민족공동행사 적극 추진과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참가 등 체육을 구체적인 교류방안으로 제시함

〈판문점선언 1조 ④항〉

④ 남과 북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안으로는 6.15를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 같이 의의가 있는 날들을 계기로 당국과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키며, 밖으로는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재능, 단합된 모습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로 하였다.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³⁾

2. 소프트 파워

- 정부는 판문점선언 1조 ④항에서 남북한 간의 교류분야에서 민족공동행사와 국제경기대회 공동 출전 등을 명시함으로써 군사력과 경제력의 전통적인 하드 파워에서 벗어나 소프트 파워를 통한 북한의 변화로 정책을 전환함
 - 소프트 파워(Soft power)⁴⁾는 군사와 정치, 경제 등 전통적 하드 파워(Hard power)를 벗어나 문화자산(Knowledge assets)과 문화자산(Cultural assets)을 바탕으로 대화와 동의를 얻어내는 개념⁵⁾
- 따라서 문화와 체육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3) 대통령의 말과 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http://www1.president.go.kr/articles/3139>

4) N. S. Joseph. Soft Power. 홍수원 역(2004). 소프트 파워. 세종: 세종연구원.

5) 최윤규(2017). 전라북도 공공외교 구상연구. 전북연구원.

〈소프트 파워의 형태〉

	행위	주요수단	정부의 정책
소프트 파워	매력, 어젠다 설정	제반가치, 문화, 제반정책, 제도	일반 외교활동, 쌍무적 다변적 외교활동

〈출처〉 N. S. Joseph. Soft Power. 홍수원 역(2004). 소프트 파워. p.71

II. 남북교류 마중물 ‘체육’

- 소프트 파워를 통한 남북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체육분야가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1. 남북체육회담

- 남북은 2018년 6월 18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체육회담을 개최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함
- 판문점선언에 따라 체육 국제대회 남북 단일팀 참가와 더불어 경평축구 부활과 농구 남북친선 경기, 북한의 전국체전 참가 등 다양한 체육행사 개최 가능성이 높아짐

〈남북체육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데 따라 2018년 6월 18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체육회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7월 4일을 계기로 평양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를 개최하기로 하고 가을에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번 평양 경기에 남측은 남녀선수단을 북측에 파견하며 경기는 남북선수 혼합경기과 친선경기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개폐회식에 공동으로 입장하며, 명칭은 코리아(KOREA), 약어 표기는 COR로, 깃발은 한반도기로, 노래는 아리랑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일부 종목들에서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남과 북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를 비롯한 종목별 국제 체육기구들과 제기되는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2018년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남과 북이 개최하는 국제경기들에 참가하며, 종목별 합동훈련 및 경기 등 남북 사이의 체육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남북통일농구경기, 2018년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진출을 비롯한 체육 분야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18일 판문점

2. 30초 TV 광고 ‘남북 공동입장’

- 메가 이벤트인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 국제 종합대회에서 남북이 공동입장하는 모습은 남북 평화의 시대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30초 TV광고임
 - 남북 공동입장은 2000 시드니 올림픽을 시작으로 2004 아테네 올림픽,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까지 이어짐
 - 그 밖에 남북은 2002 부산 아시안게임, 2003 아오모리 동계아시안게임, 2003 대구 유니버시아드, 2005 마카오 동아시아게임, 2005 인천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2007 창춘 동계아시안게임에서도 공동입장
-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결렬된 남북 공동입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재개되며 남북 관계의 봄의 이미지로 각인됨
- 남북은 남북체육회담에서 오는 8월 열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남북공동입장을 재개하고 일부 종목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함

3. 통일농구

- 김 위원장 남북교류 체육 종목으로 농구의 우선 추진을 제안함
 - 농구 마니아인 김 위원장은 NBA(미국 남자프로농구)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맨을 평양에 5번이나 초청

‘농구광’ 김정은, 문 대통령에 “경평 축구보다 농구 교류부터 하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 스포츠 교류는 농구부터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전언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스포츠 교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경평 축구보다는 농구부터 교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 최강신 리명훈 선수가 있을 때만 해도 북조선 농구가 강했는데 리명훈이 은퇴한 뒤 약해졌다. 이제 남한의 상대가 안 될 것 같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남한에는 2미터 넘는 선수들이 많죠”라고 묻기도 했다.

스위스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김 위원장은 농구광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미 프로농구(NBA) 스타 출신인 데니스 로드맨이 여러 차례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나기도 했다.

- 김 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6월 18일 남북 체육회담에서 7월 4일 평양에서 남북통일농구경기를 개최함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선수단과 취재진 등 101명을 이끌로 방북하여 3박 4일 동안 농구경기 개최

4. 통일축구

- 일제 강점기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경평 축구대회를 개최했던 축구는 분단 이후 3차례에 걸쳐 친선경기를 가졌음
- 남북 분단 이후 축구를 매개로 교류를 이어왔음
 - 1988년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으로 1990년 10월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통일축구대회'개최
 - 이후 12년 만에 2002년 9월 서울에서 '남북통일축구경기'개최하고 그 해 부산 아시아게임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
 - 2005년 당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제안한 축구경기를 북한이 수용해 8·15 민족 대축전'개최

Ⅲ. 남북교류를 위한 전라북도 체육의 대응

1. 지역에서 바라본 남북 체육교류의 의의와 한계

- 판문점선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사업의 주체로 명시함
 - 판문점선언 1조 ④항에서 남북교류사업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정책 추진이 가능함을 의미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부처의 남북교류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한계를 지님
 - 남북교류는 사업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등 다양한 부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연결되어 특정 부처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움

- 문화분야의 남북교류 미진
 - 소프트 파워 가운데 문화분야는 남측예술단 ‘봄이 온다’방북 공연 이후 판문점선언에서 원칙을 합의했지만 남북문화회담의 미개최로 교류가 더딤
 -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별 접촉을 통한 문화교류는 시기상조로 후순위임
- 체육분야의 남북교류 활발
 - 이에 반해 체육분야는 남북통일농구, 아시안게임 공동입장 합의 등 활발하게 교류 진행
- 농구와 축구, 아시안게임 등은 국가 차원의 교류로 지역은 국가대표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한계를 지님

2. 전라북도 남북교류 조례

- 전라북도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2007년 12월 제정함
- 조례에 따르면 문화와 학술, 체육, 경제, 관광, 축제 등에 기금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의 경우 소프트 파워를 활용한 남북교류의 제도가 구축되어 있음

〈전라북도 남북교류 조례〉

-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학술·체육·경제·관광·축제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 제3조 (조성)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 제4조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문화·학술·체육·경제·관광·축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4.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국제 또는 국내외의 학술 연구에 관한 사업의 추진
 5. 북한 재해·재난에 관한 사업의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 제17조 (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남북교류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12]
- 제18조 (보조금 지원 사업) 남북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홍보물 제작·활용 등 홍보사업
 2. 남북교류 및 협력을 위한 행사지원(기념행사, 박람회, 문화행사 등

3. 전라북도형 남북 체육교류

■ 선택과 집중, 태권도

- 지역과 북한의 교류는 국가대표 차원보다 지역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함
- 전라북도는 현대 태권도 겨루기의 발상지인 당위성과 태권도원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태권도를 통한 교류가 유리함
 - 전라북도에서 개최된 2017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북한 시범단이 참석하며 남북 교류의 물꼬를 틔
 - 전라북도 태권도는 현대 이종격투기와 유사한 실전 겨루기로 출발했고 북한 태권도 역시 실전을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두 태권도는 맥을 같이함
- 전라북도에 위치한 세계태권도인의 성지인 '태권도원'과 북한 '태권도전당'의 교류가 필요함

〈태권도원〉



〈출처〉 태권도원홈페이지

〈북한 태권도전당〉



〈출처〉 연합뉴스

■ 최고 수준의 축구와 농구 프로팀

- 남북체육 교류는 농구와 축구를 중심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 도내에 전북현대모터스(축구)와 전주KCC이지스(농구)가 연고를 두고 있음
 - 닥치고 공격(닥공)으로 유명한 전북현대모터스는 2016년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와 2017년 K리그를 우승한 전통적 강호
 - 전주KCC이지스 역시 2015-16 KBL 정규리그를 우승한 강팀

- 국내 정상수준의 두 팀과 북한 대표팀들과 친선경기를 통해 전북지역과 북한의 체육교류를 도모할 수 있음
- 두 팀의 모기업은 전 세계인의 이목을 주목시킴으로써 브랜드 인지도 향상 등 마케팅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음
 - 친선경기를 벗어나 북한 축구와 농구 유소년 대표팀 전지훈련을 전라북도로 초청하여 도내 프로팀의 선진기술을 전수함으로써 북한팀의 실력향상을 모색
 - 북한 유소년 대표팀 전지훈련은 도내 프로팀은 우수 선수 발굴의 기회로 활용
- 평화의 시대가 정착되면 북한국적의 선수가 전북현대모터스와 전주KCC이지스 유니폼을 입고 경기장을 누비는 모습을 구현함

〈전북현대모터스〉



〈출처〉 전북현대모터스 홈페이지

전주KCC이지스〉



〈출처〉 전주KCC이지스 홈페이지

■ 익산 전국체전 TV 광고 ‘공동입장’

- 대한체육회는 100회의 상징성을 감안하여 내년 북한선수단 초청을 검토하고 있음
 - 전국체전은 남한에서 전국 17개 광역단체에서 돌아가며 열리는 국내 최대 종합체육대회로 내년 서울에서 100회를 맞음
- 내년 전국체전 공식참가에 앞서 올해 시범참가하여 항구적 참가의 초석을 마련해야 함
 - 전라북도과 익산시는 올해 도내에서 열리는 99회 전국체전에 북한관계자 참가를 요청

■ 거버넌스를 통한 교류 추진

- 전라북도형 체육교류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함
 - 태권도원을 운영 주체인 태권도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출연기관으로 전라북도와 협력 체계 미흡
 - 전북현대모터스와 전주KCC이지스도 모기업인 둔 프로팀으로 사적영역에 속함
- 따라서 체육을 매개로 한 남북교류를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출연기관, 프로팀, 관계자들의 협의기구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 도내 전라북도 체육 이해 관계자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태권도진흥재단, 전라북도, 전라북도체육회, 전북현대모터스, 전주KCC이지스 등 이 참여하는 가칭 '전라북도 체육 남북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전라북도 체육 남북협력 거버넌스(가칭)〉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효자동3가 1052-1)
대표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